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 주일 예배 봉사위원

	01. 11	01. 18	01. 25
대 표 기 도	이윤선 성도	윤미경 자매	이상호 목사
성 경 봉 득	이윤선 성도	윤미경 자매	정환영 형제

## 교회소식

## 1월 축복 인사 :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요

-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온라인 현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 교회 표어 - “일어나서 함께 가자”로 영적성장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 말씀 카드 - 뽑은 말씀을 기도제목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 신년기도회 - 월요일(5일)~토요일(10일)까지 오전 8시 음대 강의실에 모입니다.
- 금요 기도회 - 금주 금요일은 신년기도회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 나눔의 시간 - 문희, Andreas Mäder 성도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우동정

생일	류지수 자매, 정환영 형제

##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십 일 조	
신년감사	
합계(Euro)	
온라인헌금(12월)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 2:10)”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 온라인 현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 주일 예배 Gottesdienst 가족예배

입례찬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신앙고백 Glaubensbekenn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 Gemeindelied	-----	다같이
기도 Gebet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아 2:10 - 15(구p961) (Hohelied 2:10~15)	김정규 형제
특별찬양 Sonderlied		정환영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가족환영	이상호 목사
현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상호 목사
성찬예식 Abendmahl	살아계신 주, 녹22:19~20	담임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송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현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기도제목

1. 예배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4.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장 10~15절에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성도들을 향해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부름은 신부의 요청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먼저 말씀하시는 이는 주님이심은 구원과 회복의 시작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요, 연약함 가운데 머문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일어나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도래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비가 그치고 꽃이 피며 새의 노래가 들리는 계절의 변화는 단순한 자연의 흐름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구속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계절, 곧 생명의 시대 안으로 부름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무화과나무 열매와 포도나무 향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작은 여우에 대한 경고는, 교회가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일깨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은 은혜의 길이지만, 동시에 거룩을 향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방심은 작아 보일지라도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새로운 결심을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동행 속에서 다시 일어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영적으로 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 믿음공동체 안에서 회피하고 있는 역할이나 책임은 없나요?